인 사 말

이 선 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왔나 봅니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생물 위해평가 기반마련 및 인프라 확대, 식품안전법 국제 동향과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 등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8월초 유럽에서 시작된 벨기에산 계란의 농약검출이라는 위해정보는 국내에서도 계란의 살충제 검출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연이은 생리대 유해성 문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케미포비아로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201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안전의 일원화가 되었지만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러한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체중심의 통합위해평가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사전 예방적 노력과 사후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식품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기술 고도화를 이루어나갈 중장기적 연구개발과제 발굴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안전,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기반에 대한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님들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